

다도해권 광역관광개발 사활건다

전남도, 경남도·부산시와 국가계획 포함 공동건의문 조율

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 핵심사업 추진...국비 확보 주력

전남도가 민선7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도해권 광역관광개발에 사활을 건다. 이 프로젝트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특수시책인 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 핵심사업으로 '블루오션' 섬을 둘러싼 해안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미래 먹거리 개척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경남도와 부산시 등 남해안권 광역지자체와 손잡고 문광부 광역관광개발 국가계획사업 포함을 요청할 예정이

어서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다도해권 광역관광개발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 건의문을 경남도, 부산시와 조율중이다. 3개 광역지자체의 공통 관심사로 올 하반기 열린 예정인 남해안상생협의회 공식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해양관광자원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남해안은 해양 및 섬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에

로 활용 및 관리는 미흡했던 게 현실이다. 더구나 정부가 광역관광개발사업을 내륙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도서지역에 대한 개발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강원, 충북, 경북),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인천, 경기, 강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세종, 충남, 전북) 등의 내륙개발 쏠림 현상이 바로 그 예다. 남해안은 전국 섬의 81% (2천715개), 해안선 64% (9천536km), 갯벌 46% (1천1

36㎢)를 차지할 만큼, 정부 광역관광개발의 적합지로 꼽히고 있다. 기존 해양·섬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돼 다른 목적과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추진돼 유기적이고 속도감있는 정책 추진에 애로 점이 많았다. 특히 다도해권은 3개 시·도 30개 시·군에 걸쳐있어 지자체별 개발보다는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광모델 및 콘텐츠 제공이 절실하다. 근래들어 섬의 가치를 인정한 정부는 지난 2월 해수부·행안부

·문체부·국토부 등 4개 부처 활동으로 '섬 관광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전남도는 경남도, 부산시와 의기투합해 다도해권 해양관광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명소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물꼬를 트기 위해 전남도는 다도해권 해양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의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다도해권 광역관광개발을 민선7

기 특수시책인 '남해안신성장관광벨트' 조성의 핵심사업으로 분류하고 명운을 걸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도해권 광역관광개발은 경남도, 부산시와 남해안권 광역지자체와 힘을 합쳐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가 남해안권의 관광자원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광역개발에 나설 시점이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14일 오전 서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열려 행사 참가자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소녀상에 헌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2·7면 /김애리기자

광주시·전남도, 오늘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광주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과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연다. 이날 이병환, 박성진, 이계동 애국지사의 후손들에게 건국포장 및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며, 민족정기 선양 등에 앞장서 온 공로로 박종배, 양상수, 박민아,

장아름, 윤덕훈씨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특히,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자랑스러운 광주 독립운동의 역사와 독립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담은 '광주의 독립운동과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 상영한다. 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일제강점기 및 광주 100년 도시 역사를 담은 사진전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작품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이 시장은 경축식에 앞서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보훈단체장 등과 함께 상무시민공원 내 광주독립운동기념탑에 헌화·참배하고 경축식에 이어 낮 12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진행되는 '민주의 종타종식'에 참석한다. 이날 동시에 위치한 광주백범기념관에서는 나라사랑 체험행사, 나라사랑 어린이 그림전시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행

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남도도 15일 오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1천여명의 참석자에게 '나라꽃 무궁화 목표 나누어 주기 행사'를 펼친다. 이날 나눠주는 무궁화는 꽃 전체가 흰색인 배달계, 꽃 중심부에 붉은색 단심이 있는 단심계(적단심·백단심), 꽃잎에 붉은 피무늬가 있는 아사달계 등 우수 품종이다. 무궁화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정기자 /김다이기자

내년 소재·부품산업 예산 2조 이상 반영

홍남기 "자립화 예산 안정적 확보 기금·특별회계 등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청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고 생각한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의지가 굉장히 있었는데도 번번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항구적 대책의 일환, 자립화를 확실하게 해나가는 장치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의 착실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을 만든다거나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예산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다음주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어려움 해소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라며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물 등 식품 수입시 안전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뉴스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TV

[문화산책] 엘리자베스 윈튼 · 마종일 작가

[스타브랜드] 현진기업 '붉은 수돗물 해결은...특허받은 정수장치로'

[파워인터뷰] 김영록 전남도지사

m.kjdaily.tv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정문의 062)650-2024

※오늘 광복절 휴무...16일자 신문 쉽니다

태양광 바로알기

Q1 태양광 발전소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 주변 실증조사 결과, 일반지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조량·자외선 차이 없음
대기 온도·습도 차이 없음
기동 계층 변화·소음·진동·전자파 차이 없음

Q2 태양광 발전소의 전자파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 전자파는 생활가전의 전자파 보다 약합니다.

태양광 인버터 전자파 발생량 3KW : 7.6mG
전자레인지 29.21mG
전기오븐 56.41mG
휴대용전자기 110.75mG

Q3 태양광 발전소의 빛 반사가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나요?

태양광 발전소 빛 반사율은 5~6%로 우리의 반사율보다 낮습니다.

빛 반사율 5~6%
태양광 유리·비닐하우스·수면
빛 반사율 7.48%

태양광·풍력 발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풍력 바로알기

Q4 풍력 발전소 소음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나요?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며 발전기 일반소음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합니다.

풍력 발전기의 일반소음 40dB
생활소음 규제기준 낮 : 55dB 낮 : 45dB

Q5 해상에 설치하면 해상 생태계에 문제가 없나요?

생태계 피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어족자원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관망단지로 조성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인공어로 먹이를 해 도미와 어류 자원이 늘어남

Q6 풍력 발전기가 주변 산림을 훼손시키지 않나요?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운영 종료 후 회복됩니다.

복구설계서 의무적으로 제출
운영 종료 시 자연환경을 원래대로 복구
2014 원상복구율 94.7%